

월산의 생애와 사상*

김광식**

• 목 차 •

- I. 서언
- II. 월산의 수행
- III. 불교정화운동에서의 활동
- IV. 종단 소임과 활동
- V. 월산의 불교사상
- VI. 결어

* 이 논문은 2019년 9월 1일, 월산문도회가 주최하고 대각사상연구원이 주관한 <월산대종사의 생애와 삶>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동국대 교수.

© 『大覺思想』 제32집 (2019년 12월), pp.49-85.

한글요약

이 글은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중요한 행적을 남긴 고승인 월산(1913~1997)의 생애와 사상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정리한 논고이다. 월산은 생애 후반부는 불국사 주지를 하면서 경주불교와 불국사 교구에서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조계종단의 중요 본사의 주지, 총무원장, 원로의장 등을 역임하였으나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 글은 그의 연구에 대한 서론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첫째, 월산의 수행의 과정 및 성격을 정리하였다. 문헌적 근거와 신뢰할 수 있는 증언에 의지하여 서술하였다. 둘째, 불교정화운동에서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월산은 그의 은사인 금오와 함께 정화운동 최일선에서 활동하였는데, 그는 실무자이었다. 셋째, 조계종단에서 담당한 직무에 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법주사, 동화사, 신흥사, 불국사의 주지를 역임하였다. 그는 총무원장, 원로의장을 역임하였고 법보신문을 창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넷째, 월산의 불교사상을 도출하였다. 필자는 선사상과 중도사상을 그의 사상의 초점으로 보았다.

여하튼 이 글이 월산의 생애와 사상, 현대기의 불국사의 역사, 월산문도의 역사 등의 이해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월산, 금오, 불국사, 조계종단, 불교정화운동

I. 서언

한국 현대불교사에는 수많은 고승, 선지식의 행보로 인하여 불교 발전을 이룬 역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고승의 생애, 행적, 사상 등을 정리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본 고찰에서 살필 대상인 月山큰스님(1913~1997 ; 이하 월산으로 약칭)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월산은 조계종단의 재건을 기한 불교정화운동을 건인한 고승인 金烏의 법을 받은 선지식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월산은 조계종단의 총무원장과 원로회의장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국사 주지, 불국사 선원 조실 등을 역임한 한국 현대불교사의 중요한 고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교계에서의 그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매우 미약하였다. 그의 은사인 금오에 대한 자료수집, 학문적 접근이 최근에 집중되었지만¹⁾ 금오의 법, 정신, 사상 등의 계승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도 및 학자들의 관심이 희박하였다. 금오의 전법 문제를 탐구할 경우, 그에 대한 최우선적인 고승은 월산임은 보편적인 이해이다.

본 고찰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집필되었다. 월산에 대한 생애와 사상을 올곧게, 객관적으로 소묘를 하려면 그에 관련된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고, 수집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서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월산의 자료집은 월산문도회에서 20년 전에 펴낸 범어집이²⁾ 유일

1) 금오에 대한 자료집과 논고는 다음과 같다.

『金烏集』, 금오문도회, 1974.

윤청광, 『큰 생각 크게 먹고 크게 살아라 ; 금오큰스님 구도소설』, 언어문화, 1995.

최현각, 「금오선사의 선사상」, 『한국선학』 14, 2006.

금오선수행 연구원,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전 2권), 2008.

금오선수행 연구원,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 마음달, 2010.

김광식,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 『불교학보』 57, 2011.

동국대 중학연구소, 『金烏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박부영, 『금까마귀 계수나무 위를 날고 ; 금오선사 평전』, 불교신문사, 2016.

2) 『月山禪師法語集』, 월산문도회, 1998.

하다. 요컨대 월산에 대한 일대기를 제대로 정리하고 평가를 하려면 범 어집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신문, 잡지 등에 보도된 내용을 찾고, 월산을 만났던 수많은 사부대중들의 이야기를 청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어진 자료, 찾을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월산의 일대기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월산을 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1980년 4~5월 조계종단 62회 총회에서 종정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성철보다 약간 많은 지지표를 얻었다는³⁾ 회의록을 보고, 고승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다. 즉, 월산은 누구일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 그간 연구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월산의 생애와 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징검 다리의 역할을 하는 이 글을 집필하게 되었다. 서술의 초점은 수행과 불교정화운동 참여, 그리고 다양한 종단 소임에 대한 행보, 그리고 불교사상의 개요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월산의 원로회의 의장으로서 역할, 불국사 시절의 행보, <법보신문> 창간 등에서는 후일에 보충을 기하고자 한다. 즉 보다 충실한 ‘월산 찾기’는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탐구로 보완해 가고자 한다. 이 글이 금오문중, 월산문도, 불국사 등의 역사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II. 월산의 수행

月山은 1913년 5월 1일, 함경남도 신흥군 동상면 원풍리에서 출생하였다. 부친 崔興奎와 모친 노씨 사이에서 3남 2녀의 둘째로 태어났다. 세속

3) 『4·5·6대 중앙총회록』, 조계종 중앙총회, 2001, pp.1298-1315. 1차 투표시에는 월산 28표, 성철 27표이었다. 2차 투표 시에는 월산 31표, 성철 29표이었다. 그러나 만장일치 추대, 3차 투표 강행(다 득점자 추대) 등 논란으로 인해 총회가 성원 미달, 폐회되어 종정은 선출되지 못했다. 그 이후 10·27법난(1980년 10월)이 일어나고 1981년 1월 10일, 불교정화 중흥회의에서 성철이 종정으로 추대되었다.

의 이름은 鐘烈이었는데, 소년기에는 형체와 문자 이전의 소식, 인간의 본래 모습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⁴⁾ 유년·청소년 시절에는 서당과 학교에서의 공부를 마쳤다. 입산하기 이전 청년기에는 망국의 한을 안고 일본과 중국을 왕래하였다. 20대 후반에는 만주에서 무관의 생활에 관여하였다고 한다.⁵⁾

그러나 31세 때인 1943년에 과거의 ‘풍운아’⁶⁾ 생활을 완전 단절하고 과감하게 입산, 출가의 길을 갔다. 그러면 그런 결단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서 『범어집』의 연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부친이 사망하신 후, 석왕사 노승인 양안광 스님 소개로 치악산 상원사 전금초 스님을 찾아 당시 수행 승단의 현황을 알게 됐고, 망월사로 소개 서찰을 받게 되었다.⁷⁾

즉 부친의 별세에 충격을 받아 인근 사찰로 가게 되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던 석왕사 승려의 소개로 원주 치악산 상원사의 전금초를 찾아가서 만났고, 그에게 승단 현황을 전해 듣고 망월사로 가라는 소개 서찰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1944년 해방 직전, 망월사로 찾아간 월산은 거기에서 망월사 주지인 춘성을 만났고, 그의 안내로 금오를 은사로 하여 수계(사미계)를 하였다. 즉 1944년에 정식으로 출가(수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도회의 연보의 내용을 보충하는 이야기가 있다. 우선 월산의 상좌인 성타는 재가시절에도 佛緣이 있었고, 불심이 많았던 삼촌의 권유로 석왕사를 찾아갔다고 하였다. 그래서 석왕사를 찾아 갔는데 그때에 道人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고 한다. 이런 증언을 고려하면

4) 「行狀」, 「年譜」, 『月山禪師法語集』, 월산문도회, 1998.

5) 성타스님 증언. 무관학교의 부대장을 역임하였는데, 칼로 갈라치는 것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능수능란하였다고 한다.

6) 선원빈, 「스님을 찾아서 - 佛國禪院 祖室 月山大宗師」, <법륜> 98호(1977.4), p.43.

7) 위의 「연보」, p.369.

월산의 출가는 우연이 아니고, 부친의 별세 후 출가 득도를 하겠다는 강열한 자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존 「연보」 설명과는 약간 다른 해석이 최근 나왔다. 『불교신문』 기자인 박부영이 집필한 『금오선사 평전』이다. 박부영은 그 책에서 금오와 월산의 첫 만남이 있었던 사찰이 석왕사이었다고 하였다.

금오스님과 출가 전 월산스님(최종열)은 1943년 안변 석왕사에서 처음 인연을 맺는다. 만주를 거쳐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들른 금오스님은 조실 환공스님(속명 양안광)으로부터 한 청년을 소개받는다. 소년시기부터 형체와 문자 이전의 소식과 인간의 본래 모습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하는 청년은 부친 사망 후 석왕사를 찾아 금오스님과 인연을 맺었다.⁸⁾

이처럼 석왕사에서 월산은 그의 은사가 된 금오를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이다. 석왕사에서 인연을 맺은 금오와 월산은 서울 근처인 소요산 자재암으로 와서 한 달을 머물다가, 도봉산 망월사로 내려왔는데, 그 시점이 1944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월산은 망월사에서 정식으로 삭발을 하고, 출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해석(연보, 박부영)과 다른 월산의 증언이 있다. 그는 월산이 살아생전에 회고한 증언을 2009년에 공개한 『선문화』의 기록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불교와의 인연을 맺게 된 데는 안변 석왕사를 자주 찾은 데서 비롯되었다. …(중략)… 내가 출가하기 전에도 집에 있을 때 방 가운데에 좌복을 깔고 좌선을 했는데 그때 참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명상에 들었습니다. 훗날 출가하여 금오스님으로부터 그 공부가 바로 참선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중략)… 석왕사와의 인연은 참으로 각별했지요. 내가

8) 위의 『금오선사 평전』 pp.110-111.

불문에 들어와 최초로 출가한 절이요, 불법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된 곳이 바로 석왕사였기에 더욱 석왕사의 인연이 각별했지요. 내가 석왕사에서 약 1년간 있었는데 일본 군인들의 무장해체까지 내가 직접해 주었어요.⁹⁾

월산의 석왕사 인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온다. 일면으로 수궁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글을 쓴 최석환은 월산은 석왕사에서 1년간 행자로 있다가 8·15 해방이 되자, 금오를 따라서 망월사로 가서 수계를 하였다고 하였다. 즉 월산의 망월사 수계시점이 1945년이라는 것이다.¹⁰⁾ 기존 문도회에서 주장한 1944년과는 1년의 차이가 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문도회의 검증이 요청된다.

한편, 「연보」에서는 1945년 만공스님 회상으로 가서 정진한 내용이 나오지만, 망월사에서 월산이 정진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금오선사 평전』에서는 만공 회상인 수덕사로 가기 이전의 행적이 나온다.

금오선사는 청년에게 월산(月山)이라는 법명을 내렸다. 청년이 그날 밤 둥근 달이 산 위에 떠 있는 꿈을 꾸었다는 말을 듣자 법명에 ‘달 월(月)’자를 넣어 지었다.

첫 제자를 맞이한 선사는 제자에게 화두를 건네며 참선정진을 지도했다. “참다운 수행자란 첫째도 참선, 둘째도 참선이며, 셋째도 참선이다. 그러므로 오직 참선 수행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

금오선사가 금강산 마하연에서 도암스님에게 받았던 화두, ‘시심마(是甚麼)’를 내렸다. 월산스님은 화두를 받아 정진했다. 스승과 제자는 망월사에서 흥국사로 옮겼다. 월산스님은 이곳에서 공양주를 맡아 대중들을 시봉하며 용맹정진했다. 선사는 월산스님에게 더 깊은 공부를 위해 수덕사로 갈 것을 제안했다. 수덕사는 ‘금오’라는 큰 산을 만든 덕숭의 본

9) 최석환, 「인물탐험 ; 월산대선사, 덕숭산 선맥 이어온 큰스승 月山 선사」, <선문화> 2009년 4월호, pp.51-53.

10) 최석환, 「인물연구 ; 불국선원 조실 월산선사」, <불교춘추> 3호(1996.5), p.17.

찰이었다. 그곳에는 만년의 만공스님이 남자들을 제접하고 있었다. 월산은 경허의 직계제자 만공 선사 회상에서 한철 나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것은 더 큰 산으로 우뚝 서도록 강하게 단련시킨 스승의 배려였을 것이다.¹¹⁾

위의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산은 입산 직후 계를 받자마자 은사인 금오로부터 시심마 화두를 받으면서 참선정진 수행을 하라는 강한 당부를 받았다. 둘째, 망월사를 떠나 흥국사에서 공양주를 맡으면서 정진하였다. 셋째, 은사의 권유를 받아 수덕사로 가서 만공 회상에서 한 철 수행을 하였다.¹²⁾ 이와 같은 서술은 어떠한 근거, 증언에 의해서 나온 것이겠지만¹³⁾ 재검토, 기존 「연보」의 내용과의 비교가 요청된다. 「연보」에서는 공양주 소임은 만공 회상에서 한 것으로,¹⁴⁾ ‘이뵈고’ 화두도 만공에게서 받았다고¹⁵⁾ 나오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그런 수행의 행적에 대한 이견, 문제점만을 제기한다.

그 후, 월산은 수덕사를 떠나 만행적인 수행을 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수덕사를 언제 떠나, 어디로 가서 수행을 하였는가? 그 대상처는 남은사(보길도), 봉암사(문경), 범어사 등으로 보인다. 그러면 월산은 수덕사를 언제 나와서, 봉암사에 갔는가. 바로 갔는가, 중간에 다른 곳에서 정진을 하다 갔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 전후사정은 알 수 없다. 다만 「연보」에서는 월산의 만행, 참선 정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1) 위의 책, p..112.

12) 필자가 그 당시 수덕사 정혜선원 방함록을 살폈더니, 월산은 정진 대중 명단에 나오지 않는다.

13) 그 내용은 위의 윤청광 구도소설의 pp.97-118에 나온 것과 거의 같다.

14) 위의 최석환 글에서도 만공 회상에서 공양주 소임을 한철하였다고 월산이 증언한 것으로 기술했다.

15) 위의 최석환 글에서도 만공에게서 이 뵈고 화두를 받았다고 서술했다.

만공 금봉 금오 전강선사 밑에서 수선안거를 한 뒤 3년 간의 운수행각 길에 나섰다.

수덕사를 떠나 금오스님의 보임처였던 전남 보길도 남은사에서¹⁶⁾ 비룡스님(한암스님 제자)과 함께 용맹 수행하였다.

경북 청도 직천사 토굴에서 수행 정진을 했다. 10여년 간 구도가로서 방향을 정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61년 봄 전 주지 범행스님의 추천과 함께 동화사 주지 피임, 속리산 범주사, 태백산 각화사, 신흥사, 오대산 월정사, 상원암, 문경 동화사 등지에서 수행 정진을 했다.

봉암사에서 향곡, 성철, 보문, 청담, 자운스님과 함께 수행했다.¹⁷⁾

위와 같은 월산의 수행 연보는 상당히 부실하고, 사실의 혼재, 수행 시간의 착종이 심한 내용이다. 추후 이에 대한 정황은 다양한 관점, 근거에서 재정리가 필요하다. 필자가 보건대 우선은 수덕사를 나와서 보길도 남은사로 가지 않았는가 한다.¹⁸⁾ 남은사에서 정진한 대중은 비룡, 서암,¹⁹⁾ 경산,²⁰⁾ 도광,²¹⁾ 도천 등의 수좌들이었다. 월산은 고구마와 보리의 탁발을 하면서 남은사에서 정진을 하였다.

그 이후 월산은 1948년에는 남문사에서 나와 수좌들이 결사 정진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봉암사로 가지 않았을까 한다. 봉암사는 이른바 ‘봉암사 결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지금껏 봉암사 결사에 대해서는 성철, 청담, 자운, 보문 등의 행적에만 유의하여 왔다. 그러나 봉암사 결사의 주역인 성철의 회고 기록에 월산의 이름이 나온다. 여기에서 성철의 자

16) 「연보」에서는 남문사라고 하였지만, 이는 남문사의 오기이어서 필자가 수정하였다. 보길도에는 남문사가 유일한 사찰이었다.

17) 위의 「연보」, pp.369-370.

18) 위의 최석환 글, 「인물연구 ; 불국선원 조실 월산선사」, p.17.

19) 이 청, 『서암 큰스님 평전 : 태어나기 전의 너는 무엇이었나』, 북마크, 2009, p.256, 「연보」.

20) 박원자, 『청정율사 경산스님의 삶과 가르침』, 동국대출판부, 2018, p.134.

21) 김광식, 「도광의 구도와 보살행」,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 도피안사, 2010, p.731.

필 기록과 구술 기록을 함께 제시한다.

一九四七年(丁亥年) 가을에 나는(三六歲) 크나큰 幻想을 안고 聞慶 鳳岩寺로 갔었다. 愚鳳스님은 寺刹運營의 全責任을 지고 普門스님은 十年間藏經 守護에 盡力하겠다는 鐵石같은 約束이었다. 慈雲스님과 法雄首座도 함께 왔다. 住持로는 靑眼老長을 모시고 十餘 大衆이 同居하였다. 그러나 七星閣의 撤廢, 一般佛供 及 祈齋의 拒否 등으로 因하여 莫甚한 食糧難에 빠지게 되어 愚鳳스님의 努力으로 郡에서 多大한 糧穀 特配를 얻어서 臨時 謀免을 하였다. 慈雲스님은 律藏研究에 餘念이 없었으나 普門스님은 愚鳳스님과 些少한 衝突로 法主寺 福泉으로 가버렸다. 新春이 되어 普門스님도 다시 오고 月山스님 기타 몇 스님들이 더 入住하였으나 우봉스님은 不得已한 事情으로 他所에 移徙케 되었다.²²⁾

봉암사에 들어 간 것은 정해년(丁亥年), 내 나이 그때 36세 때입니다. 지금부터 36년 전입니다.

봉암사에 들어가게 된 근본 동기는, 죽은 청담스님하고 자운스님하고 또 죽은 우봉스님하고, 그리고 내 하고 넷인데, 우리가 어떻게 근본 방침을 세웠느냐 하면,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임시적인 이익관계를 떠나서 오직 부처님 법대로만 한번 살아보자.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서 ‘부처님 법대로만 살아보자’ 이것이 願이었습시다. 즉 근본 목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소는 어디로 정하나? 물색한 결과 봉암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우봉스님이 살림맡고, 보문스님하고 자운스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넷이 들어갔습시다. 청담스님은 해인사에서 가야총림(伽倻叢林)한다고 처음 시작할 때에는 못 들어오고, 서로 약속은 했었지만 (중략)

22) 이 기록은 1965년 8월 22일, 김용사에서 월력의 종이 뒷면에 자필로 적은 것으로 그 원본은 성철의 맞상좌인 천체스님(부산, 해월정사)이 보관하고 있다. 이 문건은 <불교신문> 2007.10.27, 「성철스님 생전의 문자향 그윽」에 사진으로 보도되었다.

그 뒤로 향곡(香谷) 월산(月山), 종수(宗秀) 젊은 사람으로는 도우(道雨), 보경(寶鏡), 법전(法傳), 성수(性壽), 혜암(慧菴), 중회의장 하던 의현(義玄)이는 그때 나이 열서너댓살 되었을까? 이렇게 해서 그 멤버가 한 20명 되었습니다.²³⁾

이렇게 월산이 봉암사 결사의 현장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성철의 자필 기록과 구술 기록에 동시에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사 대중이었던 혜암의 회고 증언에도 월산이 있었음이 나온다.²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근본적인 수행인 봉암사 결사에서의²⁵⁾ 정진은 후일 그가 불교정화운동, 종단의 중요 소임자를 맡을 때에 귀중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월산은 6·25전쟁 기간에는 부산 지역으로 피란을 가서 금정사와²⁶⁾ 선암사(부산)에서도 정진을 하였다. 1950년 7월 경, 월산은 금정사 선원장으로 있었다. 이때 그의 상좌인 종원이 입산, 수계를 하였다.²⁷⁾ 1951년 봄, 월산은 상좌인 종원의 증언에 의하면 선암사 주지 소임을 보았다.²⁸⁾ 선암사 시절을 월산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우리가 젊었을 적에는 다들 화두를 들고 공부를 했지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산 선암사에서 오래 지냈지요. 육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내원사에도 있었고²⁹⁾

23) 「1947년 봉암사 결사」, <수다라> 10집, 1995, p.115.

24) 「혜암스님을 찾아서」, <고경> 2호(불기 2540년 여름호), p.19.

25) 김광식, 「봉암사 결사의 전개와 성격」,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pp.103-110.

26) 『월산선사 범어집』의 화보에 1950년 동안거 해제 때, 금정사 선원에서 수좌 대중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온다.

27)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p.265-267. 그 당시 대중으로 금오, 성철, 홍경, 무불, 강석주, 자운 등이 있었다.

28) 위와 같음. 주지 발령은 이종욱 총무원장이 하였는데, 그는 영암스님의 부탁이 작용하였다고 한다.

29) <월간 海印> 31호(1984.9), 「불국선원을 찾아서 ; 염화실의 미소 -월산」.

즉, 선암사(부산)에 있다가 내원사(양산)로 가서 정진을 하면서 6·25전쟁의 어려움을 겪었다. 선암사에는 6·25전쟁 기간에 아주 유명한 선방(소림선원)이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 입산 출가한 인환은 월산도 거기에 있었다고 회고하였다.³⁰⁾ 월산의 후임으로 향곡이 선암사 주지로 있었는데 그 무렵 유명한 수좌(지월, 서용, 홍경, 무불, 향곡, 설봉, 도광, 운문 등)들이 다수 수행을 하였다. 월산은 그 이후에는 목포의 정혜원에서 은사인 금오를 만나기도 하였다.³¹⁾

한편, 1953년 무렵에는 청도의 적천사 도솔암에서 홀로 수행을 하였다.³²⁾ 월산은 생전에 상좌들에게 제일 인상이 깊은 수행처를 말할 때에는 적천사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그의 적천사 토굴 수행의 始末의 기간은 애매하다. 당시에 그는 양식이 떨어지면 대구로 나와 탁발을 하여 해결하고, 이를 다리 밑의 거지들에게 보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³³⁾ 토굴 생활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그가 토굴, 선원 등지에서의 수행을 마치고 종단 현장으로 나온 것으로 1954년 봄 무렵이었다. 이런 수행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치열한 정진이었다.³⁴⁾

30) 『처처에 나뉜 보살행 ; 석암스님의 수행과 가르침』, 석암문도회, 2011, p.74.

31) 위의 『금오선사 평전』, p.117. 박부영은 그 시점을 1950년이라고 서술하면서, 월산은 금오를 모시고 남은사로 가서 함께 정진을 하였고, 화두 정진에 대한 지도를 받았다고 하였다.

32) 월산의 맞상좌인 종원스님은 1953년 무렵에 적천사 도솔암으로 은사인 월산스님을 찾아 갔다고 필자에게 회고했다.(2019년 4월 15일, 대구 수성구 정토사에서)

33) 위의 최석환 글, p.55.

34) 지금껏 월산의 오도의 시점, 장소 등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다. 그런데 2019년 9월 1일, 경주 불국사 불교문화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대주제 ; 월산대종사의 삶과 사상)에서 칠산스님은 다음과 같이 필자에게 발언하였다. 즉, 월산스님은 월서스님이 남지장사 주지를 하던 시절에 남지장사의 산내 토굴에서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겪었다는 것이다. 필자가 『月棲禪師 圓鏡錄』(2005)의 연보를 찾아보니 월서스님은 1962년 7월 15일에 남지장사 주지에 취임하였다가, 1968년 3월에는 법주사 재무국장을 맡았다. 그렇다면 1962~1967년경에 월산스님은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월산스님은 1961년에 동화사 주지를 하였는바, 동화사 주지를 하면서 말사인 남지장사의 토굴에서 수행 정진을 하는 과정에서 깨달았지 않았는가 한다. 이 점은 추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내용이다.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월산은 1944년 입산, 출가한 이후 거의 10년 동안 선원, 토굴 등에서 치열한 정진을 하였다. 그 정진은 주로 화두 참선을 통한 운수행각이었다. 이는 그의 은사인 금오, 만공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III. 불교정화운동에서의 활동

월산은 1954년부터 전개된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하였다. 그가 토굴에서 수행을 하다가 정화운동에 참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은사인 금오에서 비롯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오는 불교정화운동의 핵심적인 주역이었다.³⁵⁾ 그러면 지금부터 금오, 월산의 행보를 찾아서 그 전후 사정을 살펴겠다.

금오는 1953년 5월 무렵, 선학원의 조실로 추대받았다. 불교정화운동의 근거처였던 선학원의 조실이었음은 자연적으로 금오가 정화운동의 선두에 설 수 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불교정화운동이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1954.5)로 본격화 되기 이전 종단 내부에서 자체적인 정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1952년 수좌 이대위가 당시 교정(종정)인 송만암에게 수좌의 전용 수행도량의 제공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만암은 통도사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종단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후 1953년 4월, 불국사에서 그 문제를 논의할 범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종단은 만암 종정의 지시를 수용하여 18개 사찰(동화사, 직지사, 신흥사, 보문사 등)을 비구승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8개 사찰의 주지는 하필이면 자신들의 절이라면서 사찰의 양도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35) 김광식,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 『불교학보』 57, 2011.

_____, 「불교정화운동에서 금오선사의 역할」, 『金烏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 수행연구원, 2011.

런 소식을 전해들은 비구승들은 분노하였다.

바로 이럴 즈음 금오는 조계사 주지회의에 법문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금오는 그 법회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1953년 5월 太古寺(현 조계사)에서 주지회의가 열렸을 때, 禪學院 祖室 金烏스님은 초청을 받아 法門하는 자리에서 종정스님의 지시대로 비구승 수도장으로 정한 사찰을 넘겨주도록 부탁하고 “전생에 지은 일을 알려면 / 금생에 받는 과보를 볼 것이며 / 내생에 받을 일을 알려면 / 금생에 짓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는 偈頌으로 타락한 사관을 경계까지 했다.³⁶⁾

금오는 선학원 조실이었는데 주지(대처승)들에게 법문을 하면서 만암 종정이 지시하고, 종단이 결정한 사찰양도를 조속히 실천하라고 계승으로 촉구하였다. 금오가 태고사에서 행한 법문은 금오문도 승려들에게는 상식적인 역사로 인식되고 있다.³⁷⁾ 선학원으로 돌아온 금오는 태고사에서 있었던 일을 대월, 월산, 범행, 범홍, 정영, 지영 등에게 알렸다. 이를 전해들은 승려들은 협의 끝에 종단의 주지회의에 선학원 수좌인 대월, 범홍, 정영 세 명을 대표로 선출하였다. 이들은 주지회의에 가서 비구승 수행 전용을 위한 사찰 할애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³⁸⁾ 그러자 대처승은 사찰 할애의 주장을 하는 비구승을 회의장에서 내쫓았다. 이에 비구승들은 선학원에서 회의를 갖고 승단정화에 뜻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전국 수좌들이 1953년 가을에 모여 ‘1차 수좌대회’를³⁹⁾ 선학원에서 개최하였다. 그러나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모임에 참가한 수좌들이

36) 박경훈, 『불교근세백년』, 중앙일보사, 1980, p.239.

37) 『월서선사 원경록』, 월서선사법어집 간행위원회, 2005, pp.416-418, 「큰스님의 ‘한 말씀’」.

38) 『금오집』, p.181.

39) 수좌대회는 여타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다. 추정하건대 비공식적인 모임이 아닌가 한다.

동안거 결제로 인해 각 수행처로 돌아갔다. 그 이후에도 효봉, 동산, 금오, 청담을 중심으로 정화의 실천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행동 지침을 세우지 못하고 동안거 수행에 들어가서 정화의 열기는 주춤하였다.⁴⁰⁾

위와 같이 1953년 봄, 가을 경에 선학원에서 불교정화가 태동이 될 때에⁴¹⁾ 월산은 금오의 지근거리에 있었다. 당시 금오는 선학원에 머물렀지만, 수원 팔달사에도 가서 주석하였다. 그때 월산도 팔달사에 함께 있었다. 이에 대한 정황은 금오의 상좌인 이두의 회고록에 나온다.

나(필자 주, 이두스님)는 큰스님을 피시고 팔달사에 도착했다. 그때 주지인 범행스님이 34세의 젊은 때였다. 범행스님은 아주 예쁜 젊은이의 인상으로 기억된다. 그때 나는 김송월의 약을 먹고 병을 얻어 냉증 소화불량 여러 가지의 병객으로 한 여름을 살았다.

똑똑하게 큰스님 시봉을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때 월산스님도 처음 보았다.

그해 여름에 종단의 정화시비가 싹 트는 것이 신문에 나타났다.

그때 교단에 교정인 송만암스님께서 통도사 모임에서 대처승으로 인해서 종단이 말할 수 없이 부패 타락했으니 종단은 정화가 필요하고 만일 정화하지 않는다면 불교는 끝내 망하고 만다는 담화와 교시를 하셨다는 기록을 어떤 유인물을 통해서 읽었고 그 유인물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을 읽었다. 절에 온지도 얼마 안되지만 그때 나는 종단에 대해서 우물안에 개구리격이었다. 결제중인데 비오는날 범어사 청풍당에 계시는 지효스님이 큰스님과 월산스님을 뵈고져 찾아 오셨다.

그때 스님들 이야기 말씀을 들으니 곧 종단에 정화싸움이 일어난다는 짐작이 갔었다. 종단에 대처승은 중이 아닌데 이들이 종단의 실세가 되어 가지고 지금 종단을 다 맡어 먹고 정작 출가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종단과 무관하게 소외되어 있어서 한국불교는 지금 숨 넘어 가고 있으니 우리들이 나서서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제 불교를 구할 길이 없어질

40) 위의 박경훈 책, pp.239-240.

41) 범행은 1952년 경, 선학원에서 월산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금오선수행연구원,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 2권, 2008, pp.156-159.

것이다. 불교를 망치는 대처승을 몰아내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밤이 새도록 아주 진지했기에 미구에 종단싸움이 곧 시작될 것을 믿어졌었다. 선학원에 모여 선학원 운영에 관계를 달리 해야 하고 종단 정화에 관한 모든 일을 상의하기 위해 어떤 스님과 어떤 스님을 벌써 내통해서 합의를 이미 끝냈다는 것이다.⁴²⁾

위의 내용에는 만암(교정)에 의한 자생적인 불교정화가⁴³⁾ 있었던 1953년 5월 이후부터, 이승만 유시가 있었던 1954년 5월 20일 이후까지 금오 주변의 정황이 생생하게 나온다. 범어사 수좌인 김지효가 금오와 월산을 찾아와서, 불교정화의 당위성, 추진 원칙,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정황 하에서 월산은 은사인 금오의 지근거리에서 불교정화에 대한 이념, 실천 문제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였을 것이다.

1954년 6월 선학원에 각처의 비구승들이 모여 들면서 불교정화에 대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강구되었다.

선학원에는 경향 각지에 알려진 비구승들이 모여들어 임시회의를 했다. 논의 결과 정화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준비위원장에 은사이신 금오스님이 추대되었다. 그러니깐 불교정화투쟁에 제일 선봉에 나서게 된 것이다.⁴⁴⁾

이처럼 금오가 ‘불교 정화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에 추대되었다. 금오가 정화 추진체의 위원장에 추대된 날은 1954년 6월 21일이었다. 그 사정은 아래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比丘僧團 發足 動機

六月 二十日 太古寺에서 帶妻僧 敎務院 議員會에서 宗憲이 通過됨을 보

42) 위의 장이두 회고록, 「¹⁸ 금련사 토굴」.

43) 김광식, 「만암의 불교정화관」, 『조계종단의 개혁과 정화의 제문제』, 중도, 2018.

44) 위의 회고록과 같음.

고 韓國佛敎 淨化 必要性을 感하여 同年 六月 二十一日 안국동 禪學院에서 佛敎淨化運動을 發起함.

發起委員長 鄭金烏

副委員長 金寂音

外 委員 什數名⁴⁵⁾

위의 사료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금오가 왜? 불교정화를 본격화하는 최초의 조직체의 책임자로 추대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이전부터 금오는 불교정화에 대한 의지가 강렬하였다는가, 다수 비구승의 신뢰를 받았을 가능성, 서울 근교에 있었던 고승이었다는 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런 점보다는 금오는 수행자들의 수행도량의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노력하던 진정성을 당시 수좌들이 신뢰하였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금오의 행동하는 실천성도 부가되었다. 금오는 모든 일을 함에 첫마디가 ‘가자’였다고⁴⁶⁾ 함은 그를 대변한다. 즉 수좌를 이끌던 지도자,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이었다.

금오가 책임자로 있었던 불교교단 정화 대책위원회는 선학원에서 불교정화운동을 본격 추진하였다. 특히 1954년 6월 20일 기존 교단(대처측)의 회의를 지켜보면서 정화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했다. 당시 교단 집행부는 기존 중현 및 종법의 구도안에서 개선만을 의도하였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교회승으로 정하고, 수좌들에게 48개 사찰을 제공하겠다는 유화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그러자 선학원 수좌들은 그 결정에 분노하고 본격적인 정화 실행의 단계로 나갔다. 마침내 정화운동의 추진을 결정하고 공론화 하는 성격의 대회가 8월 24~25일, 선학원에서 개최되었다. 드디어 선학원에서 전국 수좌대표자 대회가 개최되었거니와, 이 대회는 불교정화운동사에서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⁴⁷⁾ 대회에서는 65명의

45) 『한국근현대 불교자료전집』 권68, p.421, 「비구승단 발족약사」.

46) 『금오스님의 불교정화운동 2』, p.88, 초우 증언.

47) 김광식, 「전국비구승대표자 대회의 시말」,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수좌가 참여하여 교단정화, 도제양성, 총림창설을 결의하였는데, 이는 교단 정화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음을 의미한다. 대회에서 금오는 종헌제정 위원 및 정화 추진 대책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 대회에 월산도 참가하였다.⁴⁸⁾ 지금껏 이런 점은 월산문도회에서도 주목하지 않았다. 월산은 그의 은사인 금오가 대회 개최의 주역이었기에, 그가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월산은 대회 참가 승려의 자격을 심사하는 전형위원의 5인(문일조, 채동일, 최월산, 정금오, 윤월하), 종헌의 제헌위원을 선출하는 전형위원 7인(윤월하, 소구산, 이순호, 대흥, 이대의, 김향곡, 최월산), 추진위원의 전형위원(채동일, 대흥, 문일조, 윤월하, 최월산, 박범룡, 이범웅), 대책위원의 선출위원(이순호, 이동현, 신소소, 이범웅, 최월산, 채동일, 이범홍)으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월산은 대회의 실무진으로 적극 활약하였던 것이다. 당시 그 대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월산의 소속이 영월 범홍사로 나온다. 팔달사에 있다가 이 무렵에는 범홍사에 잠시 머물면서 수행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불교정화운동은 1954년 9월 28~30일, 선학원에서 전국비구승니대회로 이어졌다. 이 대회에서는 비구축이 새롭게 제정한 종헌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종단 집행부를 새롭게 선출하였다. 그래서 금오와 월산은 종회의원에 피선되었다.⁴⁹⁾ 이때, 금오와 월산의 소속은 수원 팔달사로 나온다. 불교정화운동은 그 이후 파란만장한 사건을 겪고, 1955년 8월 12일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기점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비구축은 교단 재정립을 기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비구승이 종단운영을 주도하고, 대처승은 종단 외곽으로 배제되었는데 이런 제반 변화를 당시 공권력 및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였다. 이때에도 금오와 월산은 종회의원으로 재추대 되었다.⁵⁰⁾ 금오는 종단 감찰원장과 봉은사 주지로 발령

48) 위의 책, p.446.

49) 민도광, 『한국불교 승단정화사』, 1996, p.72.

50) 위의 책, p.547.

이 났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월산은 봉은사에 머물렀다.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월산은 불교정화운동 당시 운동 중심부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였다. 이는 그의 은사인 금오가 정화운동을 진두지휘 하였던 연고에서 나온 것이었겠지만, 그 자신도 토굴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정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비구승대표자대회, 전국비구승니대회, 전국승려대회에 전부 참석하였다. 대회에서는 주어진 역할을 하고, 종단 비구승 대표로 참여하고, 종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요컨대 월산은 1950년대 중반부터 종단을 대표하는 수좌이었다.⁵¹⁾

IV. 종단 소임과 활동

월산은 그의 은사인 금오가 헌신적으로 주도한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그는 조계종단을 재정립케 한 주역으로서 정화운동이 일단락이 된 이후 여러 사찰에서 주지 소임을 보았다. 그가 맡았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57년 ; 법주사 주지

1958년 ; 조계종단 재무부장(금오 총무원장 재직 시)⁵²⁾

충북 종무원장⁵³⁾

1959년 ; 신흥사(설악산) 주지⁵⁴⁾

51) 이에 대하여 그의 사제인 이두는 효봉, 동산, 금오, 청담을 정화운동의 원력보살이라고 부르면서 중년 세대의 보살로 월하, 경산, 지효, 구산, 월산을 거론하였다. 그리고 활약상으로는 정영, 보성, 도광, 포공, 오케 등의 활동이 대단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위의 「장이두 회고록 24, 봉은사 생활」.

52) 정화기념관의 재정 모금으로 곤욕을 치루었다고 한다.

53) 설석우(동화사) 조계종 종정의 「葬儀彙報」에 충북종무원장으로 조사를 한 내용이 나온다.

54) 그런데 월산이 주지 취임을 한 일자는 알 수 없다. 월산에게 신흥사 주지를 인계한 인물은 동성(강원도 종무원 재무부장, 건봉사 주지, 내장사 조실 등 역임)이

- 1961년 ; 동화사 주지⁵⁵⁾
- 1968년 ; 법주사 불교전문강원 원장⁵⁶⁾
- 1969년 ; 법주사 주지⁵⁷⁾
총무원장
법주사 선원 조실⁵⁸⁾
선학원 이사⁵⁹⁾
- 1974년 ; 불국사 주지
『금오집』 발간⁶⁰⁾
- 1975년 ; 금오대종사 부도비명 건립⁶¹⁾
- 1978년 ; 총무원장⁶²⁾
- 1979년 ; 종회의장⁶³⁾
- 1986년 ; 원로회의 의장
- 1988년 ; <법보신문> 창간

이처럼 그는 그가 정열을 다해 재건한 조계종단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의 행보, 의식, 지향 등을

다. 安東星, 『普己出發錄』, 한국윤리위원회, 1990, p.122. 월정사 주지를 역임한 장희찬은 1959년 9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신흥사 주지에 근무하였다. 『오대산의 버팀목 - 만화 회찬선사의 수행과 가르침』, 오대산 월정사, p.801.
 해인사에서 단식을 하던 고은(당시 범명, 일초)은 1959년 11월 20일의 일지에서 “설악산의 월산스님한테서 격려전보가 왔다. <축단식 최월산> 산중 소식 무상 신속도 하구나.”라 했다. 고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행복, 1994, p.90.

55) 『범어사와 불교경화운동』, 영광도서, 2008, pp.495-460. 월산이 동화사의 주지 시절 현신적인 도량관리, 신도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회고가 당시 대중이었던 현욱의 증언이 나온다.

56) <대한불교> 1968.5.12, p.2, 「광고 ; 법주사 강원 개강 공고」.

57) <대한불교> 1969.5.25, p.1, 「광고」.

58) <대한불교> 1969.12.7, p.2, 「선원과 강원 소개」.

59) <대한불교> 1969.12.28, 「선학원」.

60) 월산은 발문을 지었다.

61) 『탄허대종사 연보』, 교림, 2012, pp.156-162. 김광식, 『방산굴의 무영수』 상권, 월정사, 2013, p.316에서 월주스님은 부도비명 건립을 월산이 총괄하였다고 증언했다.

62) <대한불교> 1979.2.25, p.1, 「월산스님 총무원장직 사퇴」.

63) <대한불교> 1980.1.6, p.2, 「신년사 ; 구도자 자세 갖도록」.

다 거론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1969년 9월에 총무원장에 취임하여 1970년 7월에 총무원장의 사의를 피력하기까지의 기간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불과 10개월에 불과한 시기이었지만, 이때는 종단 사태가 아주 복잡하였다. 필자는 그 기간에 월산은 어떤 판단과 현실인식으로 종단 운용을 하였는가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기간의 월산의 고뇌, 지성, 대안을 들추고자 한다.

이런 전제에서 우선 월산이 총무원장에 취임하기 직전인 1969년 8월, <대한불교>에 2회(1969.8.10 ; 1969.8.17)로 나누어 기고한 글 「比丘는 다시 再검토 할 때가 왔다 ; 宗團은 四部大衆의 것」을 제시한다. 글의 내용은 당시 종단사의 내면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월산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어 전문을 제시한다.

역경사업이 활기를 띠고 중비생이 대학을 나와 순회포교를 하는 한편 해인총림, 조계총림 등 선방 강원의 전통적인 계맥이 부활하는 도상에 있고 불교회관 신도회관을 설계하는 등 근래에 종단은 눈이 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단의 앞날을 우려하는 탄식이 도처에 물끓듯 하니 어인 일인가?

겉으로 보이는 枝葉은 무성해도 속으로 썩어가는 枯木이드란 말인가? 比丘 比丘녀여! 그리고 優婆塞(信男) 優婆夷(信女)여!

종단은 四部衆의 것이며 四部衆의 것이어야 한다. 우리 다 함께 흥금을 열어 제치고 서로 비판하고 질책하여 깊이 깊이 반성해보자.

허영과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비구는 없는가. 또 종단에 붙어서 膏血을 빨아 먹고 있는 사이비 信男信女는 없는가.

우리 종단의 치부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그만 두자. 우리 比丘의 基本 자세부터 냉철히 검토하라. 淨化運動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너무나 오랜 세월을 낭비했으며 자신을 속이면서 방종과 탈선을 묵인해 왔다.

比丘여!

故鄉山川을 등지고 부모형제를 떠나올 때 칼날처럼 날카로왔던 理性, 오상고절의 국화가 무색하게 面壁不動 하던, 오로지 맑고 곧은 궁지는

어디로 시집보내고 勸力 앞에 무릎을 꿇고 黃金과 명예에 秋波라니 이 무슨 망령인가.

이렇게 타락하는 비구들은 가난을 천대하고, 無力者 앞에서는 더욱 오만 무례한다.

출가자의 추파는 賣春婦의 미소보다도 더 醜하다.

齷眉謠笑는 퇴약별 아래 콩밭에서 김매는 일보다도 고되다는 말이 있다. 아부하여 억지로 꾸며서 웃기란 죽기보다 어려운 生理. 이것이 比丘의 生理이며 生命처럼 지켜야 하는 비구의 정조다.

하물며 감투나 명예를 구해서 부소하는 俗物이야 없겠지. 오로지 宗團과 佛事を 위하여 忍苦하는 事務僧의 보살정신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宗團과 佛事は 목적이 아니고 길이다.

功利的으로 타산하는 사회사업이나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 생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더구나 三寶淨財는 기업 자본으로 투자된 것이 아니다. 三輪淸淨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淨財를 알뜰하게 관리하여 부유하게 발전해야겠다. 빈곤이 자랑일 수는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해타산이나 功利를 초월한 이념이다. 아무리 위대한 사업을 위해서도 俗된 政治的 策略이나 商魂을 용납할 수 없다. 결과나 성불성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이다.

수지를 맞추지 못하면서도 농토를 天職처럼 지키는 농민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지 않은가.

언제부터인지 소위 政治僧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주도권 爭奪에 寧日이 없다. 그들의 奸智나 權謀術數가 소위 일류 정객을 뺄 정도란다. 그들은 선민의식 같은 자존심으로 들떠서 眼下無人격으로 방자해 가고 있으며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원만을 가장한 인기 사치술에 催眠되어 많이 컸어 하면서 우상화 하고 부러워 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무에 맞을 부치기 시작하면 어느새 정치승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出世를 뺄단다니, 이쯤되면 구역질이 나서 더 이야기 할 수가 없다.

事務僧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종단을 위해서 혹은 가람을 수호하기 위해서 보살정신으로 헌신하는 주지나 사무승은 아는 분은 다 안다.

그리고 종단을 위해서 지상과업인 工夫를 쉬고, 일시적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스님을 事務僧이라고 지칭하지는 않는다.

우리 종단까지 노예화 하려는 日帝治下의 어느 때 본산 주지회의 석상에서 「주지는 똥보다도 더럽다」고 怒發했다는 故 萬海스님의 법문은 지금도 음미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겉으로 比丘戒를 지켜도 권력이나 명예욕을 버리지 못했다면 출가자가 아니다.

사찰재산이 없어질까 걱정 말고 주지직에 얽매이지 말자. 종단이 무너질까 두려워 하지 말고 面壁觀心하자.

三毒을 유발하는 財産이라면 차라리 버리라. 주지를 서로 떠 말기고, 감투를 서로 벗을 때 종단은 살아 난다. 이 길만이 종단이 사는 길이 아닐까 한다. 그때 비로소 보살이 나타난다.

僧侶가 기업 수완이나 사무능력이 없어서 종단이 亡했다는 예는 없다. 기업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삼보재산은 명이 들었고 사교적으로 설치면 비구의 尊嚴은 없어진다.

祖室이 首座의 權威가 밑으로 깔리고 事務僧이 官僚意識으로 설치면 설 땅은 어디나?

재산은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없는 비구는 모든 재산관리를 유능한 신남신녀에게 맡기는게 賢明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하여 사무승이나 건물 收字 收者니 증강패니 따위 汚名을 씻어버리고 工夫 잘 하는 比丘까지 都賣값으로 넘어 가지 않도록 하자.

出家 修道人이 財産管理人이 된대서야 될말인가.

우리는 信者가 財施로 佛事를 도우려는 信心을 꺾어서는 안되겠다. 주고 싶어도 받을만한 主體가 없는 격이 되면 信男信女가 얼마나 失望하겠는가

보라! 時代는 佛敎에 무엇인가 바라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僧侶들은 修道에 힘쓰지 아니하고 싸움만을 일삼다가 信任과 權威를 잃고, 신도의 성의와 信心을 敗退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먼저 自我를 잘 살피자. 自我發見에 힘쓰자.

위와 같은 理念을 위하여 긴급 동의 하노니.

第一 단계로 中央宗會부터 果敢하게 解散하자. 그리하여 새로운 理念으

로 出發하는 比丘·尼와 信男信女가 渾然一體가 될 수 있는 四部衆의 宗會를 만든다.

宗회 의원 제위의 愛宗愛團하는 行動으로 살리자.

附言할 것은 宗회는 해산하기 전에 宗會構成 方法을 制定하되 언제나 嶄新할 수 있도록 上向式 組織이어야 한다.

끝으로 우바새 우바이어! 宗단이 어지러울 때면 더욱 不退轉의 心심으로 宗단을 후원해 왔음을 激動하는 바이다.

宗단은 우리를 위한 것이니 우리의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라는 求心點을 더욱 公告히 다지자.

信男信女の 봉사활동도 수행하는 길이지 功利的인 目的이 아니라는 것은 宗教人의 常識이다. 그러므로 보수 없는 헌신이야만 하고 나아가서는 私財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납하거늘 하물며 利權에 干與하라.

다만 經理를 踴躍하는 일만은 對外的인 오해를 덜기 위해서 所有財産이 넉넉한 信者가 할지이다.

陷落鐵圍城
建立無爲國
君信各安位
合唱太平歌

* 假借 없는 비판과 聲援을 바랍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로써 월산은 당시 조계종단 내부의 무질서, 반승가적 활동, 무이념 등을 실랄하게 비판하였다. 월산은 범주사 주지임을 분명히 밝히고, 종단의 좌표를 개진하였다. 조계종단 역사에 이렇듯이 공개적으로 종단을 비판한 고승은 매우 적다. 이는 월산이 금오의 정화정신을 계승하고, 그 자신도 정화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애증적인 차원의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나온 월산의 인식과 대안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단은 사부중의 것임을 천명했다. 이 전제에서 승려와 신도를 공개 비판하였다. 둘째, 승려는 권력과 명예에 매몰된 것과 신도는 종단의 고향을 빨

아먹는 사이비성을 강력 비판하였다. 셋째, 정치승의 행태와 사무승의 관료의식을 비판하였다. 넷째, 비구승이 재산관리인으로 전락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다섯째, 비구승들은 기본자세를 정비하고, 수행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여섯째, 종도의 대의기구인 종회는 해산하고 이해 및 공리를 초월한 종단의 이념을 재정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월산의 주장에 대한 당시 종단, 종도, 신도들의 반응은 알 수 없다. 그는 월산은 이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고한 직후에 총무원장으로 추대를 받아, 취임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월산은 1969년 9월 7일에 총무원장에 취임하였다.⁶⁴⁾ 월산이 이렇게 의도치 않게, 총무원장이 된 것은 청담의 종단 개혁주장 및 종단 탈퇴 선언을 하였던 종단 사정에서 기인하였다.⁶⁵⁾

그렇다면 총무원장에 취임한 월산은 어떤 정책을 구현하려고 하였는가? 그는 취임 직전에 종단의 모순, 정체성이 혼미한 승려들의 행태를 강력 비판한 당사자이였기에 그의 행보, 노선은 흥미롭다. 이런 전제에서 그의 취임 일성으로 개진한 육성 의견을 살펴보자.

월산 신임 총무원장의 所信과 宗策에 대한 말씀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우리 종단은 특히 비구승 자체 내에서도 서로 不信 상태에 있었고 또 비구승 자신의 정화에 대한 원성이 날로 높아 일반으로부터 천대를 받아 왔다. 앞으로는 종단 원로 스님을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같이 의논하여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고 서로 신망을 받는 일을 하겠다. 파벌 관념을 일체 없애고 불교의 큰 목적과 하나의 佛弟子로 단합하여 서로 和合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은 儻·信 合同으로 구성된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일을 처리할 생각이다.

일반대중에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려면 우선 승려의 기강확립과 그동안

64) <대한불교> 1969.9.28, 「총무원 신임간부 진산식」.

65) 김광식, 「이청담과 조계종 유신제건안 연구」,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말이 많았던 불교회관 하나라도 실지 건립해야 하고 이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전 종단의 힘을 기울여 종단 일부 재산이라도 회관 건립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덕망이 높은 신도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부대중은 총단결하여 불교회관 하나를 세울 원력을 다 같이 세워야 하겠다.

그리고 종단의 근본적인 문제를 시정하여 장차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승려의 자질 향상과 수도와 행정 등 僧團 제도 문제와 포교 문제 등 각 분야 별로 연구를 실시하겠다.

가령 포교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 포교사를 많이 등용하여 교세 확충에 대한 문제와 포교사 양성에 대한 문제를 연구해야 하겠고 종단 행정 문제에 있어서도 말사 주지는 法階시험을 거친 자로 등용하고 本山 주지는 말사 주지 회의서 선출하고 중앙 총무원장은 본산 주지를 역임한 자로 하고 중회 의원도 각 교구별로 안배하고 또 上下 兩院制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上下 兩院 의원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제반 문제를 연구해야 하고 또 불교가 좋은 교리를 가지고도 현대 사회에 외면을 당하고 발전이 지연되는 점은 불교의 미신적인 신앙제도를 제거하고 교리적인 신앙과 시대성에 맞는 새로운 신앙제도로 개혁할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⁶⁶⁾

이처럼 월산은 솔직하게 그의 포부를 개진하였다. 그 포부는 첫째, 사부대중 중심의 화합승단을 만드는 것이었다.⁶⁷⁾ 이를 위해 승려와 신도가 합동으로 일을 추진하는 기구도 설립하겠다고 하였다. 둘째, 종단원력으로 불교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피력하였다. 셋째, 각 분야별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당찬 포부이었다.

이런 전제하에서 1969년 9월 등장한 월산 집행부는 1970년대를 맞이하는 종단 행정을 수도하는 종단, 일하는 종단으로 표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승려자질 향상, 중앙교육원 설립, 사찰재산의 효율적 관리, 불교회관

66) <대한불교> 1969.9.21, 「총무원장 취임 시책」.

67) <법륜> 1970년 4월호, p.11, 「총무원장 치사 -대중과 더불어 사는 불교」. 월산이 전국신도회 11차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행한 치사이다.

건립 추진, 사회봉사 활동 강화, 성보 자체보존 관리 능력 강화 등을 설정하였다.⁶⁸⁾ 이런 지향은 그 이전부터 추진된 종단 3대사업(도제양성, 포교, 역경)의 지속이었지만, 새로운 시대인 70년대를 준비하겠다는 웅골찬 기획이었다.⁶⁹⁾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월산집행부는 이와 같은 기획을 거의 추진하지 못하였다. 출범 10개월 만에 도중하차를 하였기 때문이다. 월산은 1970년 7월, 총무원장에서 퇴임하였다. 그의 후임은 중정을 역임한 청담이었다. 청담이 종단 재건, 정화운동을 마지막으로 직접 추진하려는 구도가 반영되었던 것이다. 월산의 총무원장 재임 시에는 곤혹스러운 중책, 사건 등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봉은사 땅(10만평) 매각 사건,⁷⁰⁾ 해인사 수좌들의 구들장 사건,⁷¹⁾ 청담이 직접 종단을 맡아서 정화정신을 구현해보겠다는 의지 구현,⁷²⁾ 선암사(순천) 분쟁,⁷³⁾ 태고종과의 소송⁷⁴⁾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형 사건이 터지자, 월산은 총무원장을 맡아서 그의 소신에 의거하여 종단을 이끌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그는 자리를 훌연히 떠나 방하착의 자세로⁷⁵⁾ 종단 중심부에서 내려왔다.⁷⁶⁾

한편 그는 10여년 간의 수행을 거친 1974년에는 불국사 주지에 취임하

68) <대한불교> 1970.1.1, 「1970년대 종단행정 계획 - 5일 총무원 시무식서 발표」.

69) 월산, <법륜> 1970년 1월호, 「중흥위해 끊임없는 정진을」.

<법보신문> 2018.6.11, 「5대 총무원장 월산스님」.

70) <대한불교> 1970.3.29, 「봉은사 문제,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 「광고 ; 해명서」.

<대한불교> 1970.7.5, 「10만평 처분 허가 ; 봉은사 문제 일단락」.

71) <대한불교> 1970.1.11, 「해인사 소란사건 ; 진말」.

보월, 「雜想 ; 海印波紋」, <대한불교> 1970.2.22(상) · 3.1(하).

72) 김광식, 「청담의 ‘나의 고백’과 불교근대화」, 『마음사상』 8, 2010.

73) <대한불교> 1970.2.8, 「선암사 분쟁, 그 진말을 알아보면」.

74) <법륜> 19호(1969.12), 「총무원장 최월산 담화문 - 종단 소송의 승소에 즈음하여」. 이 담화문에서 월산은 불교정화운동 및 통합종단의 정당성을 입증해 준 대법원 판결(1969.10.23)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였다. 즉 이를 기점으로 불법 본연의 질서, 청정화합의 강화(和同), 종단과업의 완수로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75) 그는 “내 소임이 아닌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한다.

76) <대한불교> 1970.7.19, 「임시 중앙총회, 월산 총무원장 불참 사퇴의사 표시」.

였다. 그래서 불국사 두 번째의 복원불사를 진두지휘하였다.⁷⁷⁾ 그러면서 불국사를 본사 사격에 걸맞는 사격 고양, 수행도량 지향 등을 위해 헌신하였다. 그 이후 월산 그는 원로회의 의장으로 활동하였고, 종정에 거론되는 등 조계종단의 어른으로 지목되었다. 이런 측면은 복잡하기에 인연이 있는 연구자에 의해 정리되길 희망한다.⁷⁸⁾

V. 월산의 불교사상

월산의 불교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필자의 입장에서 제공하겠다. 무릇 사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사유, 정체성, 지향, 활동 등의 근간 및 저변이라 하겠다. 이런 입론에서 여기에서는 월산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을 피력하겠다. 그는 禪思想과 中道思想이다.

그런데 월산의 위와 같은 불교사상의 출발은 그의 치열한 수행 그리고 그의 은사로부터 받은 전법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그가 1968년 10월, 금오에게 받은 전법의 전후 사정을 제시한다. 『금오집』에서는 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스님은 입적에 다다른 어느날, 月山 · 呑星 · 月性 · 月滿 · 月古 등의 문도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默默히 大衆을 돌아보시며, 오른 손 바닥을 보이시니, 이에 月山師가,
忽覺本來事
佛祖在何處
肚裏藏乾坤
轉身獅子吼

77) <대한불교> 1976.12.26, 「불사의 현장을 찾아 - 토함산 불국사」.

78) 김광식, 「조계종단 종정의 역사상」, 『대각사상』 19, 2013, pp.158-159.

不立
不捨
不休

라고 적어 올리시고 뒤로 물러서서 세 번 예배(退三拜揖)를 하고 서시었다.

스님은 다시 大衆을 돌아보시면서 “諸般事を 月山에게 부촉하노라.”하시니, 月山師는 거듭 스님을 向하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위하시어 더 좋은 말씀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하셨다.

“나는 無로 宗을 삼고 其他事는 汝에게 付託하노라.”하시고 아무 말씀 없이 누워 벽에 걸린 拂子를 가르치면서 月山師를 돌아보셨다.⁷⁹⁾

위의 인용문에 보이듯, 월산은 금오의 전법제자임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월산은 금오의 상수제자, 은법제자, 나아가서는 덕숭문중의 경허·만공의 법을 이은 선사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점을 자각한 월산은 그의 은사인 금오의 법과 가풍을 정리한 법어집인 『금오집』을 1974년에 발간하여 보급한 주역이 되었던 것이다.⁸⁰⁾ 그리고 1975년에는 금오의 부도비명 건립을 총괄하였다. 탄허는 그 비명에서 월산의 금오에 대한 전법 및 계승 작업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 원문을 번역하여 제시하겠다.

門徒 가운데 뛰어난 제자들을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나 법을 잇고 교화를 펴며 선사를 초월한 사람으로는 月山禪伯이 있다. 스님의 화장 후 사리를 수습하여 浮屠를 세워 봉안하고, 또한 스님께서 평소 설하신 법어와 계승, 일화 등 얼마 안 되는 말들을 수록하고 간행하여 널리 전하고 있다. 봉황의 한 깃털만 보고서도 오색영롱한 아름다운 빛을 미루어 알 수 있으니, 어찌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겠는가? 해야 할

79) 『금오집』, 1974, pp.188-189.

80) 『금오집』, 1974, pp.191-192의 월산 「발문」 참고,

일들을 모두 마쳤다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塔은 세워져 있으나 碑가 없어 後人들이 遺憾이 되어 왔다. 이 때문에 어느날 나에게 碑銘을 지어 후대에 전해주기를 부탁하기에, 내 비록 문장에 능하지 못하나 감히 이를 사양할 수 없는 까닭에 그 전 말을 위와 같이 서술하고, 아울러 한마디 말을 붙이는 바이다.⁸¹⁾

위와 같이 월산의 금오에 대한 추모, 계승에 대한 애정은 탄허의 글에서도 잘 나온다. 탄허가 쓴 그 부도비의 제막은 1975년 9월 20일 경, 범주사에서 있었다.⁸²⁾ 이때 월산은 문중대표로 인사말씀을 하였고, 탄허는 비문을 중심으로 법문을 하였다. 월산의 이런 금오 계승정신은 금오 구도소설인 『큰 생각 크게 먹고 크게 살아라』(언어문화, 1995)의 머리말, 「풍요로운 삶의 지혜 가꾸시기를..」에서도 은사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이런 자신의 사상적인 뿌리를 찾는 의식은 금오사상의 연원인 경허에도 미쳤다. 그래서 그는 1981년에 나온 『경허집』 발간에 많은 후원을 하였다.⁸³⁾

이와 같은 전제와 배경하에서 월산은 승려로서의 삶을 참선 정진에 투신하였다. 이런 내용은 상식적인 이해이다. 그는 금오와 만공에게 화두를 받았고, 토굴 정진에서도 화두 참선을 하였으며, 다양한 종단 활동을 할 때에도 불국선원을 개창하여 조실로 있을 때에도 늘상 참선정진을 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수행은 참선임을 기회만 있으면 분명하게 내세웠던 것이다.

진정한 수행승은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지. 득력(得力) 할려면

81) 『탄허대종사 연보』, 교림, 2012, pp.157-160. 탄허는 1975년 8월 17일에 짓고 썼다. 건립 시점은 알 수 없다.

82) <대한불교> 1975.9.28, 「금오대종사 부도비 제막」. 7주기로 열렸는데, 보도기사에서 기자가 그 일자를 쓰지 않았다.

83) 간행인 진성(원담)은 그 책 간행사에서 “그동안 본 법어집 간행을 위하여 만공선사 범하 벽초 경선화상과 월산 성립화상이 추진해 온 뒤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스님들 및 신심 제현의 절대적인 성원이 있었다.”라 하였다.

화두 타파하는 것만 그 전부여야 해. 물론 어록이나 부처님 말씀은 필요하지만 선원에서는 화두 타파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투구해야 해요. 그 밖에 일체 것은 다 없애고... 선원에서는 오직 일념으로 화두 타파를 해야 합니다.⁸⁴⁾

나의 사상은 참선뿐이야. 이것만큼은 죽을 때까지 할 것이야.⁸⁵⁾

자성을 깨치라는 말은 오직 참선이 제일 빨라요. 자려과 타력의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제일 빠른 길은 참선 밖에 없어. 참선을 해서 깨달으면 자아를 알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됩니다.⁸⁶⁾

이처럼 월산은 자신의 수행, 불교사상, 지향을 참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974년 6월에 불국사 주지에 취임하고, 1976년 불국사에 강원과⁸⁷⁾ 선원을 개설하였다.⁸⁸⁾ 그리고 1988년에는 선의 불모지인 경주에 부인선원을 개원하였던 것이다. 이런 제반 사실에서 참선은 그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⁸⁹⁾ 추후에는 월산 선사상의 보편성 및 성격을 참구해야 할 것이다.⁹⁰⁾

그러나 그는 참선 유일주의를 내세우면서 편협한 참선 수행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요컨대 그는 균형적, 합리적 참선수행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참선수행에서 나온 정진력, 집중력으로 일상생활을 함에서도 조화로

84) <월간 해인> 31호(1984.9), 「불국선원을 찾아서 ; 염화실의 미소 -월산」.

85) 최석환, 「인물연구 ; 불국선원 조실 월산선사」, <불교춘추> 3호(1996.5), p.18.

86) 위의 책, pp.22-23.

87) <대한불교> 1976.4.25, 「불국사 승가학원 첫 수료식」. 1975년 9월에 개원하였는데, 월산이 학원장이었다.

88) <대한불교> 1976.6.6, 「불국선원 역사적 개원」.

89) <대한불교> 1980.7.20, 「선원순례 ; 불국사 불국선원 -월산 조실」. 이 기사에 월산은 선을 현대화하고 대중화 하여 국민성을 계발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평소 신념이라고 나온다.

90) 성타는 월산의 선은 動靜에 구애받지 않은 특성이 있었기에, 다양한 소임을 보면서 참선정진을 하였다고 이해하였다. 위의 『금오스님의 불교정화운동』 2권, p.331.

운 삶, 균형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와 같은 월산의 정서, 성향을 필자는 중도사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우선 그에 연관된 월산의 어록을 제시한다.

敎와 禪을 양분하여 둘로 보나 팔만대장경이 곧 禪이요 三處傳心이 敎學임을 알아야 합니다. 本地風光의 心外別傳이 따로 어려운데 있는 게 아니고 平常心이 바른 道요 煩惱가 곧 이 菩提(지혜)듯이 禪을 佛心으로 敎를 佛言으로 律을 佛行으로 歸決處의 일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나?⁹¹⁾

이렇게 월산은 禪, 敎, 律을 분리시키지 않았다. 선이 중심이고 최선이라고 보지만 교학, 율행을 배제하지 않았다. 즉 균형적 수행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참선이 제일 중요하다고는 주장하였다. 그런데 월산은 일상생활에는 중도사상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월산의 소신을 들어보자.

큰스님은 말한다.

“중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도이지. 나의 중도관은 일체 것을 초월해서 일체 것을 여의지 않는 것이 나의 중도관이지.”⁹²⁾

- 한국의 여러 큰스님이 중도사상을 주장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나는 중도를 주장해요.”

- 큰스님의 중도사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중도사상을 늘 강조해, 대개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라고 하는 것이 중도인데, 나의 중도관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나의 중도관이지. 나쁜 것 버릴 것이 있어. 나쁜 것 고쳐서 써야지. 악이라고 버리면 돼 고쳐야지. 더군다나 언론기관에서 좋은

91) <대한불교> 1976.7.4, 「拈花室 탐방 ; 月山大禪師」.

92) 최석환, 「인물연구 ; 불국선원 조실 월산선사」, <불교춘추> 3호(1996.5), p.16.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려고 하지 말고 나쁜 것도 고쳐서 요새 정 부가 나쁜 일을 많이 하대.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백성들이 조그만 법 을 어긴 것을 들쳐 내고, 대가리 큰 놈은 큰 법을 어기로 나쁜 일을 하 는데. 그런 사람한테 법을 엄하게 다뤄야 해.” …(중략)…

- 덕숭문중의 가풍은 어떤 것입니까?

“안빈낙도(安貧樂道)라, 가난함을 즐기고 도에 즐거움을 붙이하는 말이 지.”⁹³⁾

위의 인용문에서 찾을 수 있듯이 월산의 불교사상, 선사상의 구현에는 중도사상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서 월산의 중도사상 의 본질, 성격 등을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이점에 대해서는 필자의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만 월산이 그가 소속된 덕숭문중의 가풍을 안빈낙도라 한 것을 보면⁹⁴⁾ 중도사상과 안빈낙도와는 깊은 연관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월산은 기념 휘호로 ‘透出三界 不捨一法’, ‘中道思想’을 자주 썼던 것도 고려할 측면이다. 지금껏 현대 고승에서의 중도사 상은 성철에 대해서만 주목하였는⁹⁵⁾ 바, 추후에는 월산의 중도사상의 연 구 그리고 월산과 성철의 중도사상 비교 연구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월산의 사상은 참선사상 및 중도로 요약할 수 있다.⁹⁶⁾ 이에 대한 근거, 논리, 배경 등에 대해서는 더욱 더 자료를 찾아 ‘월산사상’의 정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93) 의림, 「인터뷰 ; 불국선원 조실 월산스님」, <불교춘추> 3호(1996.5), pp.29-29.

94) <법보신문> 1989.8.30, 「해제 특별 인터뷰」. 월산은 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풍 을 安貧樂道라고 발언하였다.

95) <월간 해인> 14호(1983.4), 「성철스님 ; 중도(中道)의 원리 : 가야산의 메아리」. 서재영, 「퇴옹성철(退翁性徹)의 백일법문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학』 42호, 2005.

96) <월간 불광> 403호(2008.5), 「흠모 ; 월산스님의 제자 종우스님」. 종우스님도 중 도와 참선을 월산선사가 늘 강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VI. 결어

맺는말은 위에서 살핀 내용을 요약하면서, 추후 더욱 주목할 내용을 월산의 역사에서 찾아 제시하는 것으로 대하고자 한다.

첫째, 본 고찰에서 월산의 생애 전반을 정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미진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대강의 내용은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불교정화운동 전후의 토굴 수행 및 원로의장 시절에 대해서는 매우 미진하였다. 추후, 문도들의 증언 인터뷰를 통하여 그 공백을 보충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월산의 불교정화운동에 대한 활동, 사고, 기억 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월산의 은사인 금오의 불교정화는 미진하게나마 언급되고, 서술되었지만 월산의 불교정화에 대한 내용은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정화운동 당시의 주역 및 고승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중견 승려들의 활동을 정리할 시점이 왔다.

셋째, 본 고찰에서 월산의 종단 활동은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다뤘다. 그래서 미진한 측면은 원로의장, 불국사 주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소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근거, 기록, 증언을 찾아야 한다.

넷째, 월산의 불교 사상을 필자는 선사상과 중도사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 증언에 의거하여 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추후에는 이에 대한 내용과 성격을 더욱 더 보강해야 할 것이다.⁹⁷⁾

지금까지 필자가 본고에서 다룬 월산의 생애와 사상의 미진한 측면을 피력하였다. 이런 미진성은 필자가 지속적인 자료수집, 분석, 연구로 해소하여 가고자 한다.

97) 월산, 「만해의 자유 · 생명사상은 불교사상에서」, 『만해세열』 신년호, 만해사상실 천선양회, 1997, pp.2-3.

참고문헌

- 『金烏集』, 금오문도회, 1974.
- 『月山禪師法語集』, 월산문도회, 1998.
- 『月棲禪師 圓鏡錄』, 간행위원회, 2005.
- 윤청광, 『큰 생각 크게 먹고 크게 살아라 ; 금오큰스님 구도소설』, 언어문화, 1995.
- 금오선수행 연구원,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전 2권), 2008.
- 금오선수행 연구원,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 마음달, 2010.
- 동국대 중학연구소, 『金烏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수행 연구원, 2011.
- 『4·5·6대 중앙종회록』, 조계종 중앙종회, 2001.
- 박부영, 『금까마귀 계수나무 위를 날고 ; 금오선사 평전』, 불교신문사, 2016.
- 김광식, 「봉암사 결사의 전개와 성격」,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 _____, 「도광의 구도와 보살행」,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 도피안사, 2010.
- _____,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 『불교학보』 57, 2011.
- _____, 「불교정화운동에서 금오선사의 역할」, 『金烏스님과 한국불교』, 금오선수행 연구원, 2011.
- 의 립, 「인터뷰 ; 불국선원 조실 월산큰스님」, <불교춘추> 3호(1996. 5)
- 선원빈, 「스님을 찾아서 - 佛國禪院 祖室 月山大宗師」, <법륜> 98호(1977. 4).
- 성 타, 「鏡虛禪師의 禪世界」, 『한국불교학』 22, 한국불교학회, 1997.
- 최석환, 「인물연구 ; 불국선원 조실 월산선사」, <불교춘추> 3호(1996. 5)
- _____, 「인물탐험 ; 월산대선사, 덕숭산 선맥 이어온 큰스승 月山 선사」, <선문화> 2009년 4월호.
- 최형각, 「금오선사의 선사상」, 『한국선학』 14, 한국선학회, 2006.
- <대중불교> 97호(1990. 12), 「법을 여는 자비의 문고리 되옵시니: 월산 큰스님」.
- <대한불교> 1976. 7. 4, 「拈花室 탐방 ; 月山大禪師」.
- 『월간 海印』 31호(1984. 9), 「불국선원을 찾아서 ; 염화실의 미소 -월산」.
- 『월간 불광』 403호(2008. 5), 「흙모 ; 월산스님의 제자 종우스님」.

Abstract

The Life and Thought of the Great Monk Wolsan

Kim, Gwang-sik
(Professor, Dongguk Univ.)

This review is an article that summarizes the life and thoughts of Wolsan (월산, 1913~1997), a Korean Buddhist monk who left an important mark in Korean modern Buddhist history, in a historical context. Wolsan was active in Gyeongju Buddhism and Bulguksa dioceses in the latter half of his life, serving as the master of Bulguksa Temple. And he served as the head of the Jogye Order's important headquarters, its chief executive officer, and the head of the Wonro, but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him so far. So this article has the nature of the introduction to his research.

So in this review, I tried to describe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process and nature of the performance of Wolsan were organized, described on the basis of literary evidence and reliable testimony. Second, I organized my role in th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Wolsan, along with his benefactor, Geum-oh(금오), was at the forefront of the purification movement, which he was a working-level official. Third, the entire contents of the duties of the Jogye Order were compiled. He served as the head of Beopju Temple, Donghwa Temple, Shinheungsa Temple, and Bulguksa Temple. 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ffairs Office and the president of the Wonro Office, and was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the creation of the newspaper. Fourth, I came up with the Buddhist idea of Wolsan. I saw prehistoric and centrist thought as the

focal point of his thought.

However, I hope this review will serve as a reference to the understanding of Wolsan's life and thoughts, the history of Bulguksa in modern times, and the history of Wolsan Mundo.

Key words

Wolsan, Geumo, Bulguksa, Jogye Order,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